

宗 說

종보로 되돌아본 경자년



권갑현(權甲鉉, 종보편집위원장: 북아공파 35세)

안녕하십니까? 저는 작년 6월 1일자로 종보편집위원장을 맡은 북아공파 35세(世) 갑현(甲鉉)입니다. 경남 합천 출신으로 현재 경북 영주에 살고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1월 20일부터 해를 넘긴 지금까지 거의 1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초유(初有)의 감염증(感染症)이 크게 유행하여 우리의 일상이 정상적이지 못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대중회에서도 지난해 능동준계향사를 봉행하지 못하고 궤사고유를 하였고, 경남 산청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제32회 권문가족전국체육대회도 무기한 연기하였으며 '권기(權紀) 천백

년사' 편집위원회 회의 역시 열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12차례 발행된 종보를 살펴보니 코로나19 사태택 속에서도 거의 대부분의 종무(宗務)에 대해서는 별 차질 없이 진행되었으며 대략 열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가 유행하기 전인 작년 1월 4일에는 경남 산청 공설운동장에서 개최 예정이었던 전국체육대회를 의논하기 위해 산청종친회에서는 산청 현지에서 회합을 가졌는데 대중회에서 권해옥 회장이 직접 참석하여 인사말을 하였으며, 1월 27일(음력 정월 초사흘)에는 태사묘 정알레가 있었고, 대중회에서는 2월 18일 정관개정소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정된 정관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중국 청도 안동권씨종친회에서는 지난 3월에 안동권씨 본향 안동의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800여만원의 성금을 모아 대중회에 보내와 권해옥 회장이 성금에 상당하는 살균소독제 1,000개를 구입하여 직접 안동시를 방문하여 권영세 시장에게 전달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권오록 고문이 경상북도에 코로나19 특별성금 5억 원을 기부하기도 하였으며, 권광택 부회장도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1억원에 상당하는 구호품을 충북 지역과 대구시에 기증하였습니다. 3월 28일에는 권오록 고문의 성금 1억 원 중의 일부로 시조 묘소로 가는 입구에 묘소 안내 표지석이 우뚝 세워져 권문의 위상과 자존심을 살리게 되었습니다.

4월 5일에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능동 태사공 및 남중공 묘소 출향을 봉행할 수 없어 급기야 제례위원만이 참석하여 궤사고유를 하게 되었으며 그 전에 대중회에서는 전국 족친제 4월 5일 10시 정각에 1분 동안 묵념하도록 종보에 공고하였습니다.

5월 19일에는 2020년도 종무위원회·이사회 연석회의가 개최되어 5월 9일 상임위원회에서 추천된 권해옥 회장이 차기 회장으로 만장일치로 추대되었으며, 5월 27일 서울시 중구 소재 한국자유총연맹에서 개최된 제46차 안동권씨 대중회 정기총회에서 권해옥 현 회장이 만장일치로 제18대 안동권씨 대중회 회장에 추대되었습니다. 권해옥 회장은 수락 연설에서 권문 역사 정체성 회복, 친목 도모, 회관 문제, 권윤장군 행주대첩제의 국가행사 격상 그리고 능동 성역화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100만 족친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으로 꼭 달성하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10월 1일자 종보에서 권해옥 회장은 추원보본의 중추가절을 기원하며 코로나19 사태가 하루빨리 종식되어 시조 태사공 추계향사에는 족친들이 능동재사 추원루에 구름같이 모여 향사를 다 같이 봉행할 수 있기를 기원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아 권해옥 회장을 비롯한 현관과 제례위원 및 능곡 회원 등 70여 종원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준수하며 제464회 시조 태사공 추향을 봉행하는 데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몇 가지만 보더라도 우리 대중회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전국체육대회와 대규모 회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종무(宗務)가 큰 차질 없이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종보 편집국에서는 이러한 제반 소식을 월간 종보에 자세하고도 신속하게 보도함으로써 감염증 대유행 시대에 족친들이 직접 참여하지 못했던 문중 행사의 소식과 종원의 동정 등을 알려 드렸기에 비록 언택트(Un-Tact) 시대에 온택트(On-Tact)는 아니지만 그래도 종보라는 인쇄 매체를 통해 대중회와 족친 간의 콘택트(Con-Tact)는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종보에 대해 족친님들께 한 가지 외람된 부탁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현재 종보 구독은 불과 5,000여명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권해옥 대중회 회장이 2020 경자년 신년사에서 종보 구독 확장을 강조한 바 있듯이 올해에는 더욱 더 많은 족친님들께서 종보에 더욱 관심 가져 주시고 성원 있으시기를 바라며, 희망찬 2021년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족친님들의 댁내에 반박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특별기고〉 권인호(철학박사, 대진대 교수, 한국동양철학회 회장)

전통계승과 온고지신 및
민본적 정치철학의 실사구시적 실학정신 (7)



과연 누가 올바른 정신과 의식(윤리도덕과 깨달음, 반성과 부끄러움, 상식과 양식, 법과 제도 등)이 나가고 미쳐서, 이 사회를 모든 면에서 패거리들(학벌, 지역, 권력, 돈·재벌, 일제 식민사관, 군대·사법고시 기수서열, 가짜뉴스 언론 등)의 착각인 ‘엘리트주의’로 나라의 주권과 권력의 최고인 국(국)·민(대한민국 헌법 제1조 ①·②항)을 ‘개·폐지’로 보고 무시하는 일방통행의 오만방자한 잔치마당으로 지금의 나라의 엄중한 시대상황과 대다수 국민이 분노하는 요 모양(糞)을 만들어 냈을까요?

지난 11월 3일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공화당의 D. 트럼프의 재선과 민주당의 J. 바이든의 도전으로 주(州)별로 선거인단을 뽑아(538명 중 과반수인 270을 확보하면 당선되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미국의 오랫동안 간접선거 지속으로 복잡한 법적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법과 제도가 시대와 국민들을 위한 개혁과 개선이 되지 못하여,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고 서로가 적대시·반목질시하며 치안과 안보(‘코로나19’의 확산과 사망 세계1위 등)가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수개월 간 지속되었다.

동서고금의 역사에 유래가 없었고 전 세계가 경악과 찬사를 받았던 2016~2017년 6개월간 23차 연 시위 참가 1,695만 명으로 이른바 ‘촛불시위·무혈혁명’으로 박근혜를 탄핵하고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문재인인의 대선공약인 ‘적폐청산’과 당선 직후 시작된 ‘검찰개혁’이 김명수·조국·추미애 법무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중앙지검장) 간의 인사·행정·지휘체계 등과 방통위 인사와 언론개혁 문제, 북한·미국·중국·일본·러시아를 비롯한 베트남·인도네시아를 비롯한 동남아 정책 등, 현재 우리의 국내·외 평화·통일·정치·외교·경제·사회·문화 정책 등의 3년 8개월 여 간의 공과(功過)를 되돌아 볼 때, 여론조사 기관의 문 제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지(功) 반대(過) 40% : 50%를 문정부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혁명정부가 정권을 잡았고 대통령 지지도가 7~80%이었을 초기 때 인 사정책과 적폐청산을 서둘러 했다면, 그리고 올해 4.15 총선에서 180석 가까운 여당의 압승에서조차 약 8개월 간 뒤흔다가 반성을 촉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윤석열에 대한 징계위원회 결정을 대통령이 재가한 것을 사법부 판사의 윤석열 행정소송을 인용한 판결에 감사를 표하고 추미애의 사표를 반례하고 재인임하라는 국민들 청원이 36만 여

명이 청와대에 청원했는데도 대통령이 ‘사표를 수리하겠다.’는 언질이 뉴스에 나오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요?

동서고금의 진리이자 역사철학적 경구(警句)이자 경고(警告)인 “민심(民心)이 천심(天心)이고, 민중의 소리(Vox Populli)는 하늘의 소리(Vox Dei)”라는 것이 헛소리로 들릴까요? 참고로 제자인 자공(子貢, BC.520~456)이 정치에 대하여 질문하자 공자(孔子)는 ‘부곡(足食)과 강병(足兵)보다도 백성들이 (정치를) 믿게 해야 한다(民信之)’고 하면서 ‘백성들이 믿어주지 않으면 설 수가 없는 것이다(民無信不立)’라고 단언하였다. 또한 공자가 노(魯)나라의 대사구(大司寇; 형부상서; 형조판서; 법무장관)이 되었을 때 7일 만에, 5대악(大惡)을 저지르고 정치를 문란하게 한 소정묘(少正卯, ?~488.BC.)를 주살(誅殺)하고 그 시체를 3 일 간 궁정에 내걸었다.〔“史記” [孔子世家], “孔子家語”〔始誅篇〕, “荀子”〔有坐篇〕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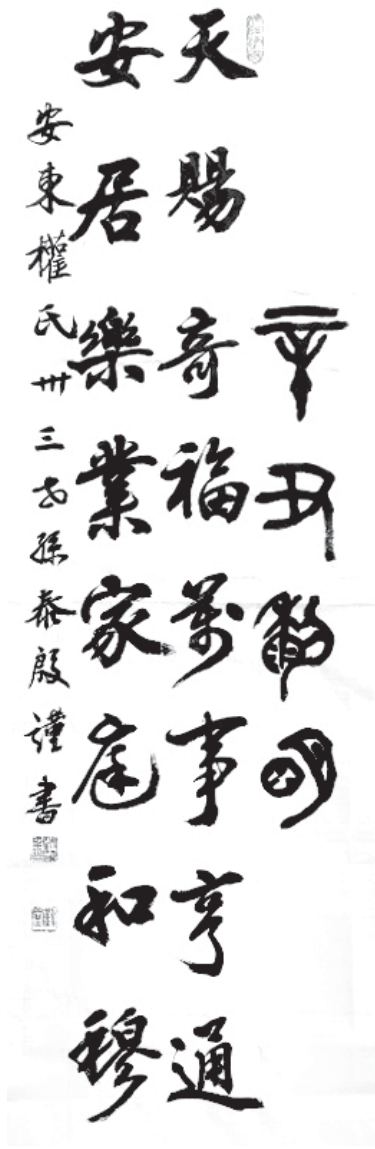
제경공(齊景公, BC.547~490. 제나라 임금 재위)이 공자에게 정치에 대해 묻자 공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임금은 임금다워야 하고 신하는 신하다는 것이며(君君臣臣), 아버지는 아버지다워야 하고 자식다운 것입니다(父父子子)”라고 하자, (제경)공은 가로되 “좋습니다(善哉) 진실로 만일 임금이 임금답지 못하고(信如君不君) 신하가 신하답지 못하며(臣不臣), 아버지가 아버지 답지 못하고(父不父) 자식이 자식답지 못하다면(子不子), 비록 곡식이 있어라도 내가 그것을 먹을 수 있겠습니까?〔雖有粟吾得而食諸〕”라고 하였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부동산 정책이나 재난지원금 등 경제기획과 재정정책 파탄과 민심이반이 구체적인 문정부 지지도의 하락현상으로 나타나 사표를 제출하자 당일로 반려 재신임하면서, 법무장관들의 사표와 1년 반과 최근 국민청원에도 왜 반대로 하고 있는지? 행정부 소속 파당적 일부 검사들이 그 정체를 드러내고(커밍 아웃·총장을 옹호하고 장관을 반대) 그들의 수장인 총장과 그 이른바 ‘시너나 바보’ 같은 사법부 판사들의 공공연한 연합 쿠데타(Coup d ‘état)적 성격의 판결은 주권자인 국민의 선거로 선출한 대통령과 국민에 대한 헌법에 보장한 ‘판사의 양심과 법률에 대한 배반이자 반란’이라고 생각한다.

제강자(季康季, ?~468.BC)가 공자에게 정치에 대한 질문하자, 공자가 대답하기를 “정치란 바르게 하는 것이니(政者正也), 그대가 바름으로써 솔선수범한다면(子帥以正) 누가 감히 바르지 않겠습니까?〔孰敢不正〕”라고 하였다. 대통령의 국정철학과 인사·정책실행이 전후좌우가 어긋나고 올바르게 솔선수범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그것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는가요?

인간 세상(天下)은 의식주(衣食住)가 2500년 전이나 100년 혹은 2~30년에 비해 조금 크게 바뀌고 변화발전이 있었을 뿐, 그 욕망(재물, 권력, 명예 등)은 대동소이할 뿐만 아니라 현상적인 양태는 극악무도한 모습으로 변화되고 치닫고 있다. 그래서 국민의 머슴들(선출직이나 고시출신이든)은 민주주의와 민주공화국인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복(公僕)임을 한 시라도 망각해서는 결코 그 존재이유가 없다고 본다. (다음호에 계속)

신축년 신년 휘호



근당(勤堂) 권태은(權泰殷, 33세, 좌윤공파) 족친이 신축년(辛丑年)을 맞이하여 100만 족친들에게 만

복을 받으실 것을 기원

하며 정성을 다해 신축년 신년 휘호를 써서 보내왔다. 근당 권태은 족친은 대한민국미술대전 입성과 대한민국현대미술대전 우수상을 비롯하여 대한민국국제예술대전 대상, 대한민국현장백일장 우수, 대한민국기호미술대전 우수, 대한민국안향회대회 우수상 등을 수상했으며 경북미술대전 초대작가 등 각종 미술대전 초대작가로 활동 중이다.

辛丑黎明(신축여명) 신축년 여명이 밝으니

天賜奇福(천사기복) 하늘에는 기이한(좋은) 복을 주고

萬事亨通(만사형통) 모든 일은 다 형통하며

安居樂業(안거낙업) 편안하게 살면서 일도 즐거이 하니

家庭和睦(가정화목) 가정은 늘 화목하다

謹 賀 新 年



100만 족친 여러분!

辛丑年 새해에는 족친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여러모로 어려움이 많으나 안동권문의 후예답게 슬기롭게 잘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금년 한 해도 파종회장협의회는

안동권문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元旦 安東權氏派宗會長協議會 會長 權奇浩

顧 問：權啓東(僕射公派), 權奇德(僕射公派), 權仁塔(正朝公派)			
會 長：權奇浩(僕射公派宗會 會長)			
副 會 長：權五秀(同正公派宗會 會長)			
監 事：權榮澤(正朝公派宗會 會長)			
事務局長：權奇元(別將公派宗會 副會長)			
會 長 團			
宗 派 宗 會 會長 權五昌	副戶長公派宗會 會長 權寧健	樞密公派宗會 會長 權五敦	僕射公派宗會 會長 權奇浩
同正公派宗會 會長 權五秀	佐尹公派宗會 會長 權伍信	別將公派宗會 會長 權奇秀	副正公派宗會 會長 權寧道
侍中公派宗會 會長 權重根	給事中公派宗會 會長 權旭炯	中允公派宗會 會長 權寧鐸	軍器監公派宗會 會長 權奇洪
正朝公派宗會 會長 權榮澤	戶長公派宗會 會長 權丙熹	檢校公派宗會 會長 權武倬	